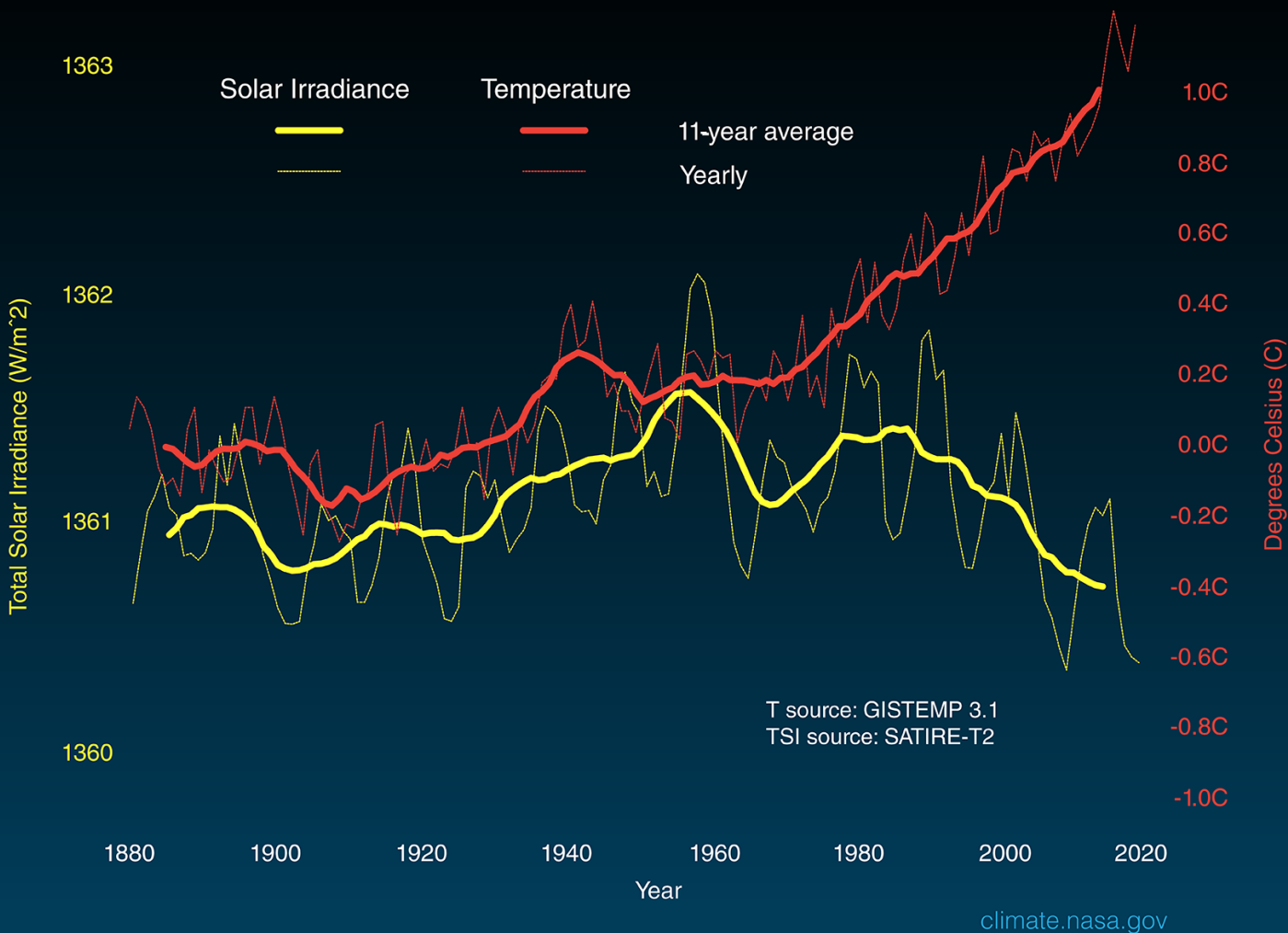




연세대학교회

The Yonsei University Church

Temperature vs Solar Activity



최근 100여 년 동안 지구 대기의 온도(붉은선)가 태양빛의 양(노란선)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NASA: climate.nasa.gov)



예수께서는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아 허기져 계실 때 악마는 예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하고 꾀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 내려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 주시리라.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이 때에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후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참고 : 마태 복음 4:1~11, 마가 복음 1:12~13, 누가 복음 4:1~13)

목 차Contents

03 시/마종기/바람의 말

목회칼럼

04 곽호철 목사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노력

특집 - 기후변화I

- 07 이석영 교우 (홍보출판 분과위원장)
에덴동산 지키기 - 밀란코비치 주기 -
- 12 이빛나 교우 (제1청장년회)
초록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사명
- 15 박상훈 교우 (제1장년회)
기후변화를 대하는 한 기독교인의 단상
- 18 강승혜 교우 (제2장년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지켜갈 수 있기를

교우소식 / 교회소식

바람의 말

마종기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 가버릴 꺼야

꽃잎 되어서 날아 가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을
지척의 자로만 재고 살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 저도 잊지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노력



곽 호 철 담임목사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가 기후위기는 인류문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평가합니다.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창조세계의 신음을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생태계 위기는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6세기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들도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붕괴하고 유럽 경작지들과 숲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땅과 물을 회복하는 것을 영적인 실천이자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08년에 창설된 시토 수도회(Ordre Cisterciensis)가 있습니다. 시토 수도회 수도사들도 다른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삼림을 재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다시 심기 운동을 벌였고, 훼손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시대 생태운동과 환경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에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현재 인류의 주소는 423이라고 합니다. 423 무슨 숫자일까요?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75ppm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15.49ppm, 그리고 2021년에는 423.1ppm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450ppm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450ppm 하에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은 기후위기의 끔찍한 터전을 물려받아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생태 보전을 위해 힘썼다면 더 악화하는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종종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다른 견해를 표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

님 나라를 철수계획(Evacuation Plan)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 계획(Building Plan)으로 이해합니다. 철수계획은 창조세계에 대한 포기입니다. 건설계획은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잘 지켜가길 원하십니다.

현재 인류 문명이 창조세계를 위협하며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류가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물질적 발전이라는 현대의 신화를 뒤에 두고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자세하게 현재의 생태 위기와 인류 문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연보호와 경제적 수익의 균형, 또는 환경 보전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불가피한 재앙이 조금 늦춰질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발전은 진보로 볼 수 없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경제 발전을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져다주는 기술과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의 보전과 그 안에서 인류가 누릴 질 높은 삶을 위해 우리가 문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미국의 한 개신교 교단은 화석연료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고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수는 그 교단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엑손(Exxon) 회사에 첫 번째 돌을 던지기"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패러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빗대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석유회사에 돌을 던진다고 비꼰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쓰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는 노예해방 운동과 비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들(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따는 목화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 폐지 운동에 가담했다고 해서 위선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도 노예경제의 일부임을 의미했을 뿐이고, 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단지 그들의 옷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려고 행동했던 이유입니다."

당시 교회는 노예 제품을 쓰고 있었고 심지어 노예를 교회에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 지키기 - 밀란코비치 주기 -



이 석 영 교수 (홍보출판 분과위원장)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고 싶어서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이제 정말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으니 꿈을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알아가다 보니 근심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연구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주는 실로 오염하고 신비롭습니다. 과거처럼 너무 몰라서 신비로운 게 아니고, 자세히 알고 나니 더욱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우주엔 수없이 많은 은하가 있지만 많은 은하는 화학 성분이 풍성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그 안에 탄생하는 별과 행성에 생명 탄생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애기는 훗날로 미루고, 우리은하는 다행히도 생명 발달에 좋은 화학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은하 안에 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태양입니다. 많은 별이 행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은하 안에 천억 개 이상의 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 내엔 “수금지화목토천해”의 8개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 중 지구와 같이 생명 탄생에 적합한 환경은 없어 보입니다. 가까이 태양계 내를 먼저 살펴보면, 지구만이 생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대기를 모두 뺏기었거나 (수성), 대기의 화학 구성이 잘못되어 표면 온도가 500도에 달하거나 (금성)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0도에 달하거나 (화성), 땅이 없이 온통 기체로만 되어 있거나 (목토천해) 하여 생명 탄생에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해방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위선은 아닙니다. 노예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회개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교회는 창조세계를 오염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창조의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컬 사순절 탄소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환경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탄소 사용 발자국 줄이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탄소 없는 주일을 지정해서, 그 주일은 교우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 주일만큼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탄소 없는 주일 혹은 탄소 소비를 줄이는 주일을 만들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웃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그 일은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제공하는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대지의 선물』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이웃의 삶이 의존하고 있는 위대한 유산을 경멸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좋은 대지 위에서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우리들이 하느님이 피조세계로부터 떠나서 파괴의 원리와 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만일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키면 - 대기라고 알려진 멋진 피조물을 해롭게 하면 -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포함하여 숨 쉬는 모든 피조물에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다. 평계를 대고 면제받거나 "교체하거나" 할 수는 없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일 피조물의 몸을 파괴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사랑하면서, 능숙하게, 존경하면서 행한다면, 그것은 성례전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탐욕으로, 서투르게, 파괴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신성모독에서 우리는 자신들을 영적이며 도덕적인 외로움에 빠지게 하고, 또한 다른 것들을 궁핍하게 만들도록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례전을 행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 착취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땅에서의 인류의 생존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창조세계의 보전,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동시에,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세계의 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는 실로 “에텐동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처에 두고 있는 중심별 태양은 질량이 적당하여 식물의 광합성에 딱 적합한 자외광을 수십억 년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심별의 질량이 조금만 달랐다면 자외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고,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생명 탄생에 부적합했을 겁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별이 이런 상황이지요. 지구의 공전궤도가 조금만 더 찌그러져서 심한 타원궤도였다면 연중 온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생명 탄생과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지구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적도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극지방은 계속 온도가 낮아져서,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이 생물권으로써 부적합하게 됩니다. 지구의 질량도 딱 알맞아서 적당량의 대기를 보유합니다. 또한, 지구는 내부 일부가 액체인 마그마로 되어 있어서 약하지만, 자기장을 뿜니다. 이 미미한 자기장은 우리 일상에선 나침반을 사용할 때를 빼곤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로 인해 지구 주위에 반알렌대(Van Allen Belt)라는 자기권을 만들어 태양에서 매 순간 오는 생명에 유해한 입자를 막아 줍니다.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는 아무리 다른 모든 환경이 적합하더라도 애초부터 생명 탄생에 부적합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4,000여 개의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같은 생명 탄생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탐사를 통해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을 찾게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구야말로 압도적으로 좋은 에텐동산 후보입니다.

제가 기후 변화(climate change) 또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략 30년 전입니다. 이 표현이 미국항공우주국 NASA의 제임스 헨슨(James Hansen)에 의해 1988년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니 얼추 시점이 맞네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땐 대부분 그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의 호들갑, 정치인들의 선전이라는 설부터 일부 기업인들의 작전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등장했지요. 제 주변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0년이 흘러 많은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의 증거가 넘쳐흐르지만, 저는 이미 익숙한 얘기는 옆에 밀어 두고 천문학자로서 긴 시간의 안목으로 상황을 논해 보겠습니다. 밀루틴 밀란코비치(Milutin Milanković)는 1879년에 옛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 오늘의 세르비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박사 학위는 토목 공학 분야에서 받고 토목 공학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워낙 수학에 뛰어나서 후에 대학으로 돌아온 후 행성에 미치는 태양 빛의 영향 연구에 전념했으니, 토목 공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지구물리학자 등 여러 정체성을 띠었습니다. 중세의 르네상스인처럼 말입니다.

밀란코비치는 태양 주위로 움직이는 지구 궤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낮이 밤보다 더운 이유는 물론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겨울보다 더운 것은 태양의 고도가 더 높고 낮이 더 길기 때문이고요. 더불어, 태양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구는 태양 빛을 덜 받게 됩니다. 결국 지구의 온도는 태양의 거리와 고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 궤도에 가까운 타원궤도지만 그 이심률(완전한 원에서 벗어나는 정도)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계 내에서 압도적인 질량을 가진 태양의 영향뿐 아니라 목성과 토성의 영향도 조금이나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심률 변화의 주기가 약 100,000년입니다. 그러니 지구 태양의 거리가 타원궤도 때문에 1년 공전 주기로 조금씩 바뀌는 것 외에도 100,000년 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구의 자전축은 태양에 대한 공전 면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여름엔 태양이 거의 하늘 높이 오래 떠 있지만 겨울엔 땅과 훨씬 가까이 낮게 떠 있고 금방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구의 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41,000년 주기로 22.1 도에서 24.5 도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 어느 지역이든 이 주기에 따라 온도가 변하지요.

마지막으로, 지구의 자전축은 26,000년 주기로 원을 그립니다. 세차운동이라고 부르죠. 북극성은 현재 우리 지구의 북극이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별이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이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잠시 후엔” 북극성이 더 이상 “북극성”이 아니게 됩니다. 어려서 갖고 놀던 팽이가 돌기를 조금 지치면 회전축이 조금씩 원을 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선 자전축의 기울기가 미치는 영향과 같은 종류의 영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밀란코비치는 1920년대부터 20여 년간 이런 태양-지구 간의 거리와 고도 변화의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략적인 주기성을 띤 변화가 합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한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땅속 깊이에서 파 올린 흙으로부터 알아낸 지난 백만 년 동안의 지구 빙하기의 출몰이 이 세 가지 효과로 근사하게 설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태양의 영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장장 백만 년 동안의 복잡한 지구의 자연 변화가 단지 외부요인에 불과한 천문학적 현상 세 가지만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설명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부르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1958년에 타계한 지 50여 년이 지난 후, 2007년엔 노벨 평화상 그리고 2019년엔 노벨 물리학상이 기후 변화 연구에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지난 백만 년의 지구 온도 변화를 꽤 근사하게 설명한 밀란코비치 주기가 오늘의 지구 온도도 잘 맞출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시작한 1850년 후로 지구의 온도는 밀란코비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에 의하면 이걸 화석연료 사용의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이 보기엔, 지금의 추세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조절되어 꺾이지 않는다면 지구환경은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지난 46억 년 동안 가꿔온 환경을 인간이 겨우 150년 만에 바꿔 놓았고 이게 어찌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니 큰일이 아닙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조지 밀러 감독의 2015년 걸작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실제 상황을 다룬 공포영화로 느껴집니다. 그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인류는 사막처럼 황폐한 지구에서 거의 숨만 쉬고 있습니다. 에텐동산을 맡아 관리하는 인류가 상황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무분별하게 부수고, 짓고, 버리고, 먹고, 태우는 동안 에텐동산을 분노의 도로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인류가 산업혁명을 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 자체를 정죄할 순 없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것도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46억 년 걸려 만든 에텐동산은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까요? 지구는 오늘의 인류에게 너무 작은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문명을 포기할 필요 없이, 사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 가면 도움이 될까요? 에너지를 찾는 방법, 삶의 터전을 설계하는 방법,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방법, 에너지를 나누고 그 값을 치르는 방법 등, 우리가 함께 궁리하여 에텐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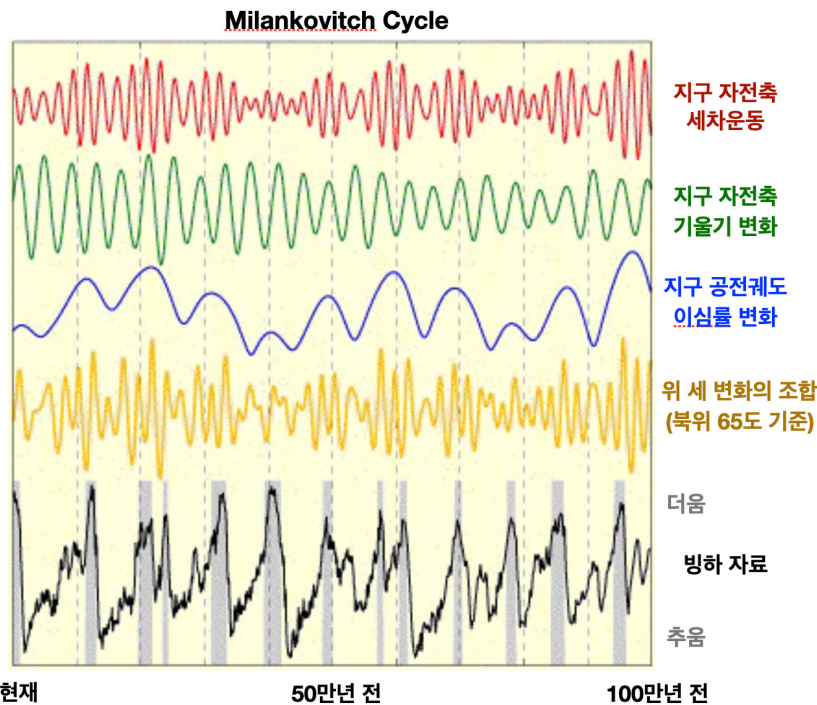


그림 . 밀란코비치 주기와 지구 빙하기와의 관계.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 (맨 위),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두번째),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 (세번째)에 의해 북위 65도 지역에서 예상되는 태양의 영향의 변화를 도출하면 (네번째), 그 양상이 실제 그 지역의 토양에서 알아낸 1850년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난 100만 년 동안의 빙하기의 출몰을 대략 설명할 수 있다. 1850년 이후의 지구의 온도는 이 예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크게 벗어나 증가하고 있다.

(출처: Erica R. Pianca http://www.zo.utexas.edu/courses/thoc/Milankovitch_Cycles.html)

초록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사명

이 빛 나 교수
(제1청장년회)



초등학생 둘째 아이가 얼마 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동식물들을 좋아해서, 생태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는 종종 온라인에서 관련 소식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최근 접한 이야기들이 아이에게 매우 충격인 듯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개월뿐이 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진 저는 아이에게 물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유엔 산하 기구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IPCC에서 1990년부터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인데, 이는 약 30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약에서 여러 국가들이 210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아래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해수면은 지구 기온이 1.5℃ 상승 시엔 최대 77cm, 2℃ 상승 시에는 최대 87cm 정도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기후

난민이 되어 주변국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몽골 등에서도 이상기후로 거주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식물과 곤충들이 사라질 확률도 50% 이상 늘어납니다. 2021년 8월,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남극 황제펭귄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영국남극조사단(BAS), 프랑스 파리대학교, 호주 극지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인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탄소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황제펭귄 서식지의 70%가 사라지고, 2100년에는 황제펭귄의 98%가 서식지를 잃어 멸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기후위기로 2100년까지 8개 농작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2022년 2월에 발간한 '기후위기 식량보고서: 사라지는 것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로 2100년까지 콩과 사과, 커피, 감자, 쌀, 고추, 조개, 콩 등 8가지 농작물 생산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5. 1.5℃는 인류를 비롯한 여러 생물종의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이 지속하면 지구의 온도는 무려 4~5℃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성경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런데 위에서 보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동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는데, 현재의 우리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시대 대홍수와 같은 일을 인류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둘째 아이는 학교에서 개최한 환경 주제의 독후감상대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식물을 도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편하게 살면서 식물을 위기로 몰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식물을 도와주어 행복한 지구를 만들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쓴 그 글을 읽으면서,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맡아 돌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인류가 우리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지난 수십억 년간 이어져 온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온 행위들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30개월 후 다시금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노아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자신을 노아라 여기며 당연히 방주에 오를 수 있노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는 지구의 자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초록슈퍼맨이 되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동산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방주를 “초록기독교인”이 되어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자녀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변화를 대하는 한 기독교인의 단상



박 상 훈 교수
(제1장년회)

나는 어린 시절 강화의 석모도라는 작은 섬에서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면 이것을 생각하는 나도 없다면 이 우주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도 없는 우주, 빅뱅이니 우주의 탄생이 137억 년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시절 얘기다. 우주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근본적이며 본원적이라 본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며 이 아름다운 별에 생명이 시작된 것은 그 후 6억 년 지난 40억 년 전이라 한다. 지구에 생명이 생긴 이후 지구상의 생명체는 생성과 멸망 등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고 대량절멸(mass extinction)은 5차례가 있었다. 이 다섯 차례의 대량절멸은 지구의 기후변화, 소행성과의 충돌 및 화산폭발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즉 자연재해였다는 것이다.

지구는 아주 특별한 별이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본인 태양으로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기 적당한 거리란 거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지구에 사계절도 생명체 출현도 없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 지구에서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명을 받았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28)

1차 산업혁명 이후 2, 3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 있었고 이들 혁명이 만든 문명은 탄소 문명이다. 지구의 석탄기 등 긴 시간 광합성으로 만든 탄소가 지층에 저장된 것이 석탄 등이고 또 다른 이유로 긴 시간 생성되어 묻혀 있는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우리 인류는 겨우 200여 년 쓰고 지구 온도를 1.0도 올렸다. 7천만 년 그리고 그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탄소를 지난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대량 사용하며 인류는 문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탄소 과다 사용 문명은 마침내 지구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는 기후변화와 위기를,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6차 대량절멸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있다. 6차 대량절멸은 지난 다섯 차례와 달리 우리들이 탄소를 과다하게 사용하므로 올 것이라고 IPCC 보고서는 경고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시기 이전과 비교 1.5도 내로 멈추지 못할 경우 우리 지구는 6차 대량절멸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넘어간다고 한다. 그때 최대 피해자는 우리 인류라 한다. 절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 비밀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주의 기원까지 찾아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내게는 있다.

엘리시움, 2013년 만든 영화다. 오염되어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지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낙원을 더럽힌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밖 우주에 깨끗한 이상향을 만들어 “특별한” 1% 인류만이 사는 곳이 엘리시움이다. 엘리시움을 만들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면 특별한 그들만의 엘리시움을 만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이 지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이 지구를 엘리시움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지구 기후위기를 가져온 만큼 이것이 지구를 구할 것이다. 과학 기술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북극곰을 살리자”, “탄소 사용을 줄이자” 등 여러 가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 등도 매일 우리에게 온다. 지구를 이미 더럽힌 선진국들과 겨우 산업화에 들어가 21세기 문명에 참가하는 후진국 입장에서 탄소 중립 관련 정의는 일방적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더 진행되어 티핑 포인트를 넘기면 그들이 사는 땅도 지구와 함께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기후위기 주창자들의 주장이며 IPCC 보고서의 경고다. 또 그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들이 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28)

매일 숲을 걷고 푸른 하늘을 보자.

우리 이웃에 같이 사는 식물과 곤충들을 살피고 잠시 멈추어 지켜보자.
그리고 네 잎 클로버를 찾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지켜갈 수 있기를



강 승 혜 교수 (제2장년회)

제가 속한 한국어교육 분야 미국 측 교사연합회와 한국 측 학회가 연합하여 학회를 열었던 97년 여름 미국 애리조나에서 학회를 마무리하고 학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그랜드캐니언 관광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곡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빠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젊은 대학생 한 무리가 어떤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니 몇 부 화성으로 즉시 시작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때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며 들었던 찬양이 생생합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신 김관동 교수님과 성악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지만, 그 찬양을 들으며 초월적 존재로서 전능하신 분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만 같은 그랜드캐니언의 압도되는 규모와 장관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혼돈’상태에서 ‘질서’를 만드심으로 모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세밀한 규칙과 질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끔 즐겨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신기한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된 아름다운 생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규칙대로 질서 있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 인간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이 지구상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도 주셨으니,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도 ‘지구 가열(global heating)’이란 말을 써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등 기후 변화의 극단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유럽 지역 만년설의 빙하를 녹아내리게 한 폭염은 2022년 올해 유럽 전역의 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도나 높았다고 하니, 기후변화의 증상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로 기온과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여 우리나라 동해 수온이 1968년부터 2020년까지 58년간 전 세계 표층 수온(0.53도)보다 1.59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기온으로 지구 여기저기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짐으로써 2030년쯤에는 우리나라도 해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 또한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 지구상의 다양한 인간의 활동에서 초래된 심각한 환경 문제 등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당장 다가올 10년, 20년 이내 일어날 재앙이기 때문에 닥칠 일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집중 호우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피해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못 살게 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조를 보여주시며 경고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물난리가 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격해 와 지난 2년 넘는 시간을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보내고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디고 무감각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누가 가르치고 깨우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교육학을 전공한 저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늘 교육학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할 일을 감당해 왔나 하는 반성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영어, 수학보다는 음악, 미술, 체육이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주요 교과목이 아니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지혜와 실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 학교 교육에서 인간의 삶에, 전 지구적 문제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가정과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깨우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단시간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달라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 교육은 믿음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단번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단번에 굳건해질 수 없는 것처럼, 켜켜이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 하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고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 이처럼 비관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이들을 깨우치고 주위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래 물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이 지구를 불로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변성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기시켜 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인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 운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푸르고 맑은 하늘과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넘치는 은혜로 벅차오를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고 지켜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끝 간 데 없이 자연을 훼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 기후변화에 관해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이 가을호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교우소식

장례 및 추모

- ▷ 신현운 교우: 모친상(故조재희 집사), 3월 22일 소천
- ▷ 최경예/강원희 교우(부친상/장인상): 故최도완 성도, 5월 19일 소천
- ▷ 황현택/홍현미 교우/황도훈/황지윤(모친상/시모상/조모상): 故유명열 권사 5월 30일 소천
- ▷ 故탁연택 교우(장혜선 교우): 본인상, 6월 8일 소천
- ▷ 故김현산 교우(김은산 교우): 1주기 추도예배,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6월 25일(토), 11시
- ▷ 박기환 교우: 부친상, 故 박병선 장로님, 7월 12일 소천
- ▷ 조혜전 교우: 부친상, 故조윤호 교우, 8월 19일 밤 소천, 순천한국병원장례식장, 발인 8월 22일(월).
- ▷ 故배정희 교우(김동재 교우): 본인상, 8월 25일 소천
- ▷ 故김옥라 장로(라제건/오혜련 교우): 1주기 추도예배(8월 30일), 김옥라 장로 1주기 기념 추모집 출판, 교우님들께 증정(100권)

결혼·출산

- ▷ 장지우/김채안 교우(장용교우 장용 교우 장남/며느리): 아들 출산, 3월 8일
- ▷ 윤빛 목사/이다은 사모(대학부국제 담당목사): 아들 하온 출산, 2월 15일
- ▷ 문성빈/백영숙 교우: 장남 결혼(문창완/최혜정), 7월 16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더 블레스 3층 그랜드 볼룸
- ▷ 박현민/임현정 교우(임평용/장정숙 교우 차녀): 득녀, 7월 15일(금)

수상

- ▷ 이영대 교우(제1청장년회): 국민일보 주관 ‘2022 국민미션어워드’ 수상
- ▷ 공일호 교우: 31회 성정음악콩쿠르 은상 입상
- ▷ 윤종규 교우: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수상, 2022. 8. 18.

출판

- ▷ 이 숙 교우(1장년회): 출판, 『윌리엄 전킨과 메리 전킨 부부 선교사 편지』

연주회

- ▷ 김혜옥 교우: 상떼자듀 수난절 연주회, 요한수난곡, 3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티켓문의: 사무실
- ▷ 백인재 교우: 연주회, 시인의 사랑, 4월 2일 (토) 오후 7시, 지아아트홀(1호선 금천구청역), 초대권 문의 010-9924-8073(백인재)
- ▷ 박송이 지휘자: Duo Concert, 상떼자듀합창단 기획연주회 6월 30일(목), 7:30 영산아트홀
- ▷ 신동일 오르가니스트: 7월 31일~8월 12일, 노르웨이 순회연주회
- ▷ 카운터테너 강예국 & 바리톤 김우진 듀오콘서트 〈Nostalgia〉 2022년 8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 금천구 지아아트홀
- ▷ 김혜옥 교우: 2022 상떼자듀 합창단 기획연주회 〈Mozart Requiem〉, 2022. 09. 04.(일) 19:3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사임·부임

- ▷ 2월 1일 정미현 교목실장(부임)
- ▷ 3월 6일 이대성 목사(사임)/ 곽호철 담임목사(부임)

기타

- ▷ 이영대 교우: CTS 내가 매일 기쁘게『이영대 대표』편 방송, 본방// 7월 26일 화요일 9시, 재방// 7월 28일 목요일 18시 30분
- ▷ 하희송 교우: 8월 초 출국, 카자흐스탄 Nazarbayev University의 공공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GSPP) 재직

교회소식

2월

- * 2월 27일 교회학교 졸업식(졸업장 수여)
 - ▷ 유치부: 김지유 정은화 정윤재 한노엘 ▷ 초등부: 김희재
 - ▷ 중등부: 박민재 김채현 안세운 ▷ 고등부: 김서준 김동건 윤여은 박지호 안시윤 강태원

3월

- *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주간을 위한 40일 탄소금식 공동캠페인진행
- * 2022년 신규교회위원 임명
 - ▷ 임기를 마친 교회위원(존칭생략): 김관동(이사), 김신욱, 이 숙, 이행자, 최경예, 황순옥, 전해영, 이종민, 신수연
 - ▷ 2022년 신임 교회위원(존칭생략)
 - 예배분과위원장-윤종규 교회학교장-안종현 친교분과위원장-허운조
 - 봉사분과위원장-이은경 홍보출판분과위원장-이석영 경조사분과위원장-권계식
 - 2장년회회장-유진주 1청장년회회장-황승림 2청장년회회장-김아름

4월

- * 4월 3일 교회위원회 워크숍
-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 성금요일예배안내
 - ▷ 일시: 4월 11일(월)~4월 14일(목) 오전6시/ 성금요일예배(금) 오후3시
 - ▷ 장소: 루스채플 예배실
- * 4월 17일 부활절 세례식
 - ▷ 유아세례: 이현서(이영채/이숙현) ▷ 세례: 김규민, 이용제, 조원주 ▷ 입교: 박혜린
- * 4월 18일 부활절맞이 학교용역업체(청소, 주차, 보안)직원들을 위한 떡과 부활절 달걀을 300 세트 준비, 전달

5월

- * 5월 1일 새 교우 환영 모임
- * 5월 8일 주일 성서 연구 개강
 - ▷ 주제: 성서의 핵심 메시지 ▷ 강사: 정운형 목사
 - ▷ 일시: 5월 8일~6월 26일(8주간) 매 주일 10시
- * 5월 8일 어버이주일 맞이 꽃과 간식박스 증정
- * 故정재식 교우의 추모예식 5월 9일 오후5시에 루스채플
- * 5월 14일 영유아 학부모 북클럽 모임 재개, 선정도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폴 트립 저)
- * 5월 22일 기후위기 동참 탄소 줄이기 일환, 온라인주보 시작

6월

- * 6월 26일 박명윤/이행자 의료선교기금에서 600만원을 방글라데시 심장병어린이 수술비로 지원

7월

- * 7월 3일 대학교회 공개강좌
 - ▷ 일시: 7월 3일 9:30~10:15, 루스채플/온라인, 친교실 교제 10:15~10:45
 - ▷ 강사: 장병철 교우(현 차병원 흉부외과 교수,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 제목: 에비슨의 기도
- * 7월 10일 새 교우 교육(강사: 곽호철 담임목사, 교재: 다시 만나는 교회)

8월

- * 8월 7일 특별 유아세례자
 - ▷ 방다니엘(현성), 방디모데(의성)(부모: 방사무엘/송나진, 조부모: 방상길/김혜옥)
- * 8월 12일 2022년 전교인 수양회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축소 개최
 - ▷ 주제: 영성의 사람, 묵상의 사람(시1:2-3)
 - ▷ 강사: 유해룡 목사(모새골 공동체 담임목사)
 - ▷ 일시: 8월 12일(금) ▷ 장소: 루스채플 및 원일한 홀

새교우 환영

- 3월 6일 엄태은
- 4월 3일 박주선
- 5월 1일 이근민
- 6월 5일 권호근/이사라 김한빈
- 7월 10일 김에스터, 유지은(황치옥/최경숙)
- 7월 24일 제니킴, 한정석/최영진/한수민/한지우

교회 모임 및 담당자 안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루스채플 예배실	담임목사, 외부설교자
성가대 성경공부		오전 9:30	루스채플 113호	곽호철 목사
주일 성서 연구		오전 10:00	루스채플 113호	외부 강사
교회 학교	유 치 부	오전 11:00	루스채플 114호	신정미 전도사
	초 등 부	오전 11:00	원일한홀 101호	조미영 목사
	중 • 고등부	오전 11:00	원일한홀 B101호	김준철 전도사
대학부 예배	신 촌	오후 2:00	루스채플 예배실	이해석 목사
	국 제	오전 11:00	크리스틴채플	윤 빛 목사
금요 중보기도 모임		오후 7:00	원일한홀 101호	김명수 목사
교회위원회		매월첫째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남선교회, 여선교회		매월둘째주일 예배 후		친교실, 원일한홀 101호
제1장년회, 제2청장년회		매월셋째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제2장년회, 제1청장년회		매월넷째주일, 매월 마지막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목회실 업무		곽호철 목사, 김명수 목사, 이해석 목사		

